

당진 민간전문가, 고충 민원 해결

市, 송창석 조정관 위촉

【당진】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한다.

당진형 ombudsman제로 불리는 이 제도를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진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청 2층에서 고충민원조정관실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당진시, 민간전문가가 고충민원 해결한다

송창석씨 고충민원조정관 위촉...시청 2층에 사무실 개소

충남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키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당진형 ombudsman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

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2층에 마련돼 있는 고충민원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봉호기자



당진시청 2층에 마련된 '고충민원조정관실' 개소식에서 (왼쪽부터)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윤영수 당진시의원,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민간전문가가 고충민원 해결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당진형 ombudsman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ilbo.com

대전투데이



송창석 고충민원 조정관 위촉

당진시, 시청 2층에 사무실 개소·시민 고충민원 해결

당진시가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 조정관'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한다.

당진형 읍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 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 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당진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 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2층에 마련돼 있는 고충민원 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투데이충남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운영

당진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당진형 읍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

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2층에 마련돼 있는 고충민원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진/김영민 기자

당진 고충민원조정관 도입

권익침해 구제 한계보완 기대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1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시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중부매일



당진시가 시청 2층에 고충민원조정관실을 개소했다.

/당진시 제공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민간전문가가 해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2년간 시민 권익보호 활동

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당진형 읍부즈맨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고충민원 해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일 송창석 씨를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민원과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당진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정심판 등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당진시청 2층에 마련돼 있는 고충민원조정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희복/당진